

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용서하심, 신실하심, 정직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정에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 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함께 드리는 기도 -----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03편 17절~18절 ----- 말 은 이

- 17) 여호와와 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 씬 -----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어가는 가정” ----- 말 은 이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해당하는 시편 103편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시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인자와 공화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행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자하심을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이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늘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희생과 수고를 생활화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